

미국산 광우병 쇠고기

수입 재개

“정말 해도 너무 한다. 미국의 눈치를 보는 정부가 한심스럽다” 연일 주요 언론에서 다루고 있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지켜본 일반 국민들이 보는 시각이다. 비단 농업에 종사하는, 혹은 한-미 FTA를 반대하는 단체들의 주장이 아닌 국민들의 목소리다. 농림부가 강기갑 의원실에 제출한 ‘2006년 10월~2007년 7월 미국산 쇠고기 검역현황’에 따르면 총 319건의 검역중에서 188건, 58%에서 수입위생조건에 위배되는 척추뼈, 갈비통뼈, 가짜 검역증, 뿔조각, 금속 이물질, 다이옥신 등이 발견된 것으로 나타났다. 수입조건을 밥 먹듯이 위반하고 있으나 정부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 중단이 자칫 그간 공들여 온 한-미 FTA에 찬물을 끼얹는 것이 아닌지 전전긍긍하며 미국 눈치보기에 급급한 실정이다. 1차적인 책임이야 수입조건을 위반한 미국에 있다 할지라도 이러한 사실을 은폐하려고 일부러 공개하지 않은 정부의 태도는 비판받아 마땅할 것이다.

반복되는 미국의 수입위생 조건 위반

또 다시 수입조건에 맞지 않는 ‘통뼈’가 발견되었다. 지난 10월 부산항에 들어온 미국산 쇠고기 15톤, 1,300상자 중 1상자에서 또다시 갈비통뼈가 발견되었다. 지난 7월 광우병 위험물질(SRM)이 발견되었는데, 정부는 수입중단이 아닌 검역중단이라는 소극적인 대처로 인해 큰 비판을 받아왔다. 이후 8월 31일에 개최된 ‘가축방역협의회’에서 농민단체가 반대의견을 밝혔으나 “가축방역협의회는 자문기구일 뿐”이라며, 협의회에서 반대 의견을 묵살하고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강행하였다. 이후 정부가 빗장을 풀고 수입 검역이 재개된 지 불과 일주일 만에 또다시 수입이 금지된 갈비통뼈가 검출되는 웃지 못할 촌극이 벌어졌다. 이 쇠고기를 도축 가공한 작업장은 지난 7월 31일에 이미 갈비통뼈가 검출돼 수출 선적 중단조치를 받았던 곳으로 이번에 다시 갈비통뼈가 발견된 것이다. 서두에 지적했듯이 검역중에서 약 60% 정도의 위반 사례가 나왔다는 것은 미국이 현행 수입조건을 이행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즉 작업장에서 대형 전기톱을 사용해 소를 도축하는 현 시스템 상 뿔조각을 완전히 걸러내는 것을 기대할 수 없다는 의미이다. 이를 잘 알고 있는 미국의 관료들은 권고사항에 불과한 OIE 규정(5월 개최된 OIE 회의에서 미국은 ‘광우병 위험 통제국’으로 판정받았다)을 들먹거리며 이번

계기로 당초 협의한 '30개월 미만 살코기' 라는 수입 기준을 '특정위험물질을 제외한 소의 모든 부위' 로 개정하자며 한국을 압박하고 있다.

정부의 무원칙이 최고의 대응(?)

정부의 독자적인 수입위험분석 작업이, 난데없이 전문가 협의회가 새로 잡히는 등 일관성 없이 진행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고 노컷뉴스가 9월 4일 보도했다. 기사에 따르면 지난 5월 28일 정부는 미국산 쇠고기 에 대한 수입위생조건 개정에 임하면서 “독자적인 수입위험분석을 거쳐 과학적인 근거에 따라 미국과 협의를 진행하겠다”는 ‘원칙’ 을 밝혔다. 그러나 지난달 1일에는 미국산 쇠고기에서 등뼈가 검출되면서 정부는 아무 근거도 없는 ‘수입검역 중단’ 결정을 내렸다. 그로부터 한 달이 못돼 이번에는 이례적으로 주무장관인 농림부 장관이 참석하지 않은 채 수입검역 재개 결론이 내려졌다는 것이다. 이어 수입위험분석 5단계인 ‘가축방역협의회’ 도 일정이 앞당겨져 갑자기 열렸고 대신 예정에도 없는 ‘전문가협의회’ 라는 것을 열자는 쪽으로 봉합됐다는 것이다. 3개월이 지나는 동안 여러 가지 변수들이 생기면서 정부가 애초 고수했던 원칙은 온데간데 없어져 버린 것이다. 한-미 FTA 강행을 쇠고기를 수입해야 한다고는 하지만, 이걸 너무 티가 나지 않는가?

일부가 아닌 대다수 국민들도 수입반대

일부 언론에서는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하는 타 국가의 수입을 비교하면서 정부의 30개월 미만의 뼈없는 쇠고기 수입조건은 다른 나라의 비해 턱없이 높다는 주장을 정부 관계자의 입을 빌어 표현하고 있다. 그러나 다른 나라에 비해 높은 수준의 검역체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은 뼈를 포함한 모든 부위를 소비하는 우리나라의 식생활 문화를 감안한다면, 지금보다 한층 강화된 검역체계가 필요하다 할 것이다. 최근 언론에서 실시한 여론조사를 보면 국민들 대다수가 광우병 위험이 있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KBS의 여론조사를 살펴보면 ‘뼈 있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위한’ 정부의 일정 강행에 대해 반대하는 의견이 72%로 나타났다. 현행 유지 49.2%, 수입 전면금지 22.4%로 수입에 따른 부정적 의견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CBS의 여론조사에서도 정부의 검역재개에 대해 10명 중 6명(61.9%)이 ‘성급하다’고 의견을 나타내고 있다. 위 반사례가 발생할 때마다 미국의 구차한 변명으로 들어가며 국민을 설득하려는 정부의 넓은 아량(?)도 이제 한계에 다다른 듯 하다. 물론 정부는 한-미 FTA를 강행코자 지난 8월 31일 가축방역협의회를 열고, ‘30개월 미만의 뼈있는 쇠고기’, ‘광우병 특정위험물질(SRM) 제거’ 를 기준으로 하는 미국산 뼈있는 쇠고기 수입방안을 내놓았다. 그러나 국민들의 반대여론이 거센 상황에서 정부가 맹목적으로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한다는 것은 더 큰 국민적 반발을 가져올 것이며, 정부의 신뢰도는 곤두박질 칠 것이다. 이제라도 미국의 대변자가 아닌 국민을 대변하는 정부로 거듭나야 하지 않을까? 미국산 쇠고기 수입 중단... 국민의 건강권을 생각한다면 반드시 취해져야 할 응분의 조치이다.